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개최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5-05-22 19:09 KRX7

#대구시 #계명대 #행소박물관 #전시회 #동물과인간

90여 점의 회화, 도자기, 공예품과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 조명



계명대학교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사진 = 계명대학교)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진 동물, 기린 ▲꽃과 나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의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동물은 과거에는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굵직한 기획전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 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문화유적 답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공휴일에도 개방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URL :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756830>

HOME (/) > 뉴스 (/news/articleList.html?sc section code=S1N1) > 대학핫뉴스-일반대 (/news/articleList.html?sc sub section code=S2N2)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개최

하영 | 승인 2025.05.22 20:40

창립 126주년 맞아 5월 22일(목)부터 10월 31일(금)까지 무료 관람  
90여 점의 회화, 도자기, 공예품과,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 조명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5월 22일(목)부터 10월 31일(금)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진 동물, 기린 꽃과 나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의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동물은 과거에는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굵직한 기획전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 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문화유적 답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휴일에도 개방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영

# e대학저널

HOME > 대학뉴스 > 대학일반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온종림 기자 / 기사작성 : 2025-05-22 17:50:06

회화, 도자기, 공예품과,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동물과 인간 관계 조명



해설사가 그림,영상,음향의 융합으로 탄생한 '판타지아 무릉도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계명대 제공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계명대학교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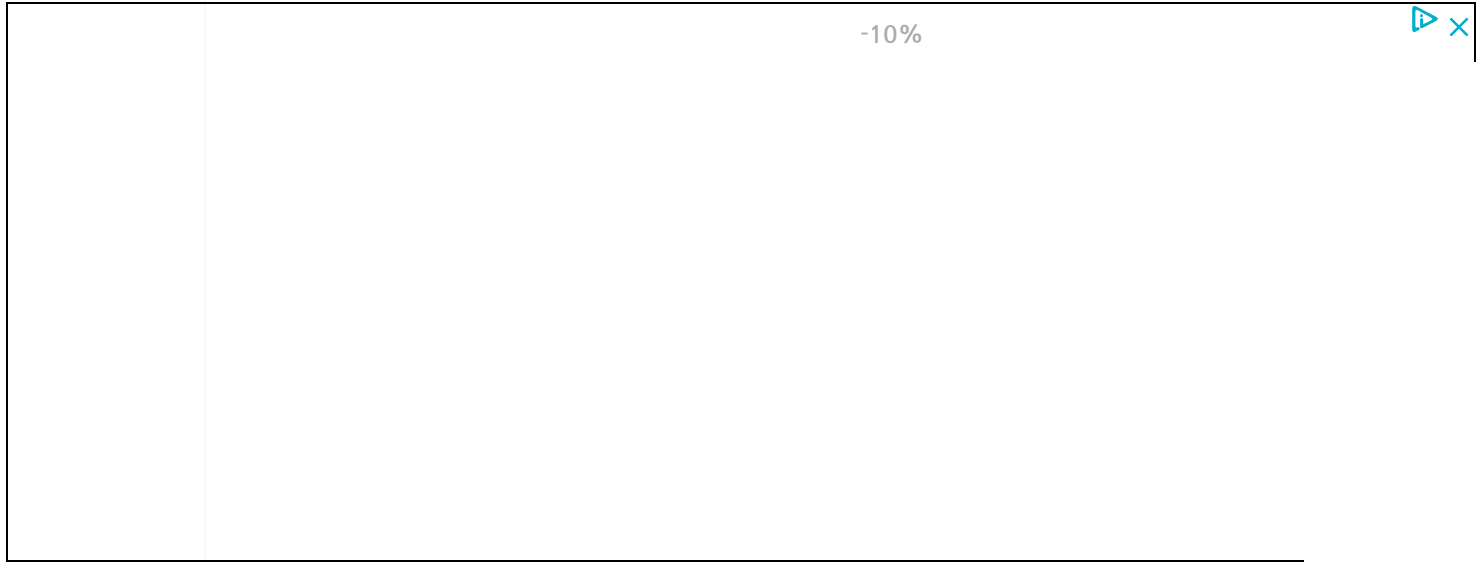
전시는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진 동물, 기린 ▲꽃과 나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의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동물은 과거에는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굵직한 기획전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 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문화유적 답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휴일에도 개방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dhnews.co.kr> ]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개최

✎ 박소현 기자 | ⌚ 승인 2025.05.22 17:57

## 창립 126주년 맞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료 관람

[베리타스알파=박소현 기자] 계명대는 창립 126주년을 맞아 5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진 동물, 기린 ▲꽃과 나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의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동물은 과거에는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굵직한 기획전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 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문화유적 답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휴일에도 개방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명대는 창립 126주년을 맞아 5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사진=계명대 제공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개최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05.23 09:35 게재일 2025.05.23



해설사가 그림,영상,음향의 융합으로 탄생한 판타지아 무릉도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계명대 제공

계명대학교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진 동물, 기린 △꽃과 나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의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동물은 과거에는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굵직한 기획전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 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문화유적 답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휴일에도 개방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인쇄하기

##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 개최

창립 126주년 맞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료 관람  
90여 점 회화, 도자기, 공예품과,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 조명

기사입력 2025-05-23 21:34:50 | 최종수정 2025-05-23 21:35:13 | 강승탁 기자 | [stking12@newdailybiz.co.kr](mailto:stking12@newdailybiz.co.kr)



▲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계명대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진 동물, 기린 ▲꽃과 나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의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동물은 과거에는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굵직한 기획전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 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문화유적 답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휴일에도 개방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mailto:stking12@newdailybiz.co.kr))

---

이 기사 주소: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3/2025052300366.html>



---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10월까지 개최

공정식 기자

2025.05.23 오후 04:02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열린 창립 126주년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찾은 관람객이 해설사로부터 그림·영상·음향의 융합으로 탄생한 '판타지아 무릉도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계명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계명대는 창립 126주년을 맞아 교내 행소박물관에서 '동물과 인간' 특별전을 오는 10월까지 개최한다.

이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회화·도자기·공예품·미디어아트 등의 작품을 통해 돌아보고,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9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힘든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소개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 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비중 있는 기획전을 선보이며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jsgong@news1.kr

☞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792628>

# 계명대 행소박물관, 창립 126주년 맞아 '동물과 인간' 특별전..10월 31일까지 무료 관람

대구=박종률 기자 | 승인 2025.05.23 07:46

90여 점의 회화, 도자기, 공예품과,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 조명



해설사가 관람객에게 사냥하는 그림 속 호랑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계명대)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하고 있다.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진 동물, 기린 ▲꽃과 나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의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동물은 과거에는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기간에는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휴일에도 개방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대구=박종률 기자 jrpark69@naver.com



# 每日新聞

## 계명대 행소박물관, 용, 호랑이, 토끼...예술 속 '동물의 얼굴' 다시 보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5-05-23 11:17:15 수정 2025-05-23 11:16:29

특별전 '동물과 인간' 개최, 5월부터 10월까지  
 90여 점 작품으로 풀어낸 인간과 동물의 관계  
 용맹·지혜·권위...다섯 가지 상징으로 동물의 의미 조명



계명대 행소박물관 해설사가 그림과 영상, 음악의 융합으로 탄생한 '판타지아 무릉도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명대 제공



계명대 행소박물관 해설사가 관람객에게 사냥하는 그림 속 호랑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명대 제공

계명대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예술로 풀어낸 특별 전시를 선보인다. 시대를 넘나드는 예술을 통해 동물과 인간 사이 오래된 대화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창립 126주년을 기념해 이달 22일부터 10월 31일(금)까지 행소박물관 1층 동국실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인간과 동물이 맺어온 관계를 예술의 언어로 되짚으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문화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전시는 총 9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회화, 도자기, 공예품은 물론, 대학박물관에선 이례적인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돼 있어 고전과 현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동물 표현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시대별, 매체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엿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호랑이(용맹·해학·공포) ▷토끼(달·지혜) ▷용(권위·신화) ▷해태·기린(정의·어진 존재) ▷새와 동물(자연 속 공존) 등 다섯 상징 주제로 구성된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까지 포괄하며, 동물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과거 동물은 신화나 도구로 기능했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됐다"며 "이번 전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소박물관은 2004년 계명대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굵직한 기획 전시이며, 지역 사회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전시 외에도 유적 답사, 문화 강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 기간 중에는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관람 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에도 개방되며, 관람은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HOME (/) > 로컬+ (/news/artideList.html?sc section code=S1N17) > 대구·경북 (/news/artideList.html?sc sub section code=S2N91)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개최

김진욱 기자 | 승인 2025.05.23 09:21

창립 126주년 맞아 5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무료 관람  
90여 점의 회화, 도자기, 공예품과,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 조명



해설사가 관람객에게 사냥하는 그림 속 호랑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계명대)

계명대학교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5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진 동물, 기린 △꽃과 나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의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동물은 과거에는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굵직한 기획전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 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문화유적 답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휴일에도 개방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욱 기자 기자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개최

2025-05-23 08:18:02



[계명대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계명대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진 동물, 기린 ▲꽃과 나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의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동물은 과거에는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93790>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개최...동물과 인간의 관계 조명

✎ 백운용 기자 | ⓒ 승인 2025.05.24 11:15



사진제공=계명대학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계명대학교는 "창립 126주년 맞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동물과 인간' 특별전을 무료 관람 할 수 있으며 90여 점의 회화, 도자기, 공예품과,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한다"고 말했다.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에 따르면, "창립 126주년을 맞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동물과 인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계명대학교는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히 대학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명재학교는 "이번 전시가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진 동물, 기린 ▲꽃과 나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의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명대학교는 "행소박물관은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굵직한 기획전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 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문화유적 답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계명대학교는 "전시 기간에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휴일에도 개방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백운용 기자** paekting@naver.com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개최

안상혁 | © 2025-05-25 17:16:28

계명대학교 창립 126주년 특별전시회 '동물과 인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했는데 회화와 도자기 등 작품 9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에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 계명대 행소박물관, '동물과 인간' 특별전 개최

이태헌 기자 leeth9048@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5.05.25 19:43



계명대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오는 10월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계명대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전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박물관 1층 동곡실(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총 90여 점의 전시품에는 회화, 도자기, 공예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도 포함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며, 특 기 드문 현대미술과 디지털 매체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용맹함과 해학, 두려움의 대상, 호랑이 △달과 지혜의 상징, 토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화 속 주인공, 용 △정의의 수호신, 해태, 어 무에 깃든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득 징의 변화를 반영한다.

김윤희 행소박물관장은 "동물은 과거에는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반려, 보호, 공존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지난 2004년 성서캠퍼스로 이전한 뒤 대영박물관 대구전, 중국국보전, 헝가리 합스부르크왕가 보물전 등 굵직한 기획전 및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 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문화유적 답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머그컵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계명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053-580-69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비바 2080] 3대가 볼 만한 공연 축제... 경주서 6월 7~8일 대형 한류문화 축제 등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입력 2025-05-27 11:17 수정 2025-05-27 11:19



경주예술의전당 공연 모습. 사진=경주시

## ◇ 경주서 6월 7~8일 대형 한류문화 축제... 음악·패션·음식 한자리에

경북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이 6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경주예술의전당에서 K-팝과 K-뷰티·패션, K-푸드·라이프가 망아된 한류 문화축제 '2025 마이K 페스타 인 경주'를 연다. 핵심 프로그램인 K-팝 아티스트의 미니 콘서트는 이틀간 총 8회 진행된다. 로이킴과 이무진, FT아일랜드, 카더가든, 이븐, 최예나, 원어스, 헤이즈 등이 출연한다. 입장권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7일과 8일 모두 오후 2시 야외 분수광장에서는 필리핀, 튀르키예, 멕시코 등 국내외 유명 댄스 팀이 참여하는 관객 참여형 커버댄스 공연이 무료로 펼쳐진다. 분수광장에는 뷰티·패션 등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메이크업과 요가·명상, 신라복 체험, 석빙고 팔빙수 만들기 등 총 11개 프로그램

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일부 체험형 콘텐츠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경주문화재단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 송파구, 6월 한달 간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



서울 송파구가 m-ART센터에서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 아트페어의 틀을 과감히 넘어 예술과 대중이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개념의 세계적 예술 축제로 꾸며진다. 미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프리카, 인도 등 세계 11개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국내외 예술가들이 퍼포먼스와 콘서트, 음악, 예술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친다.

관람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으로 라이브 아트 토크쇼, 퍼포먼스 공연 등이 추가되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의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초대형 보석 융합 예술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시가 10억 원에 달하는 50캐럿 탄자나이트와 현대미술이 결합된 예술작품이 처음으로 전시된다.

◇ 목포시,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세계마당페스티벌'



전남 목포시의 원도심 일대에서 극단 갯돌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의 민간 공연예술축제 '세계마당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어기영차 마당아!'란 주제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다. 마당극과 전통연희, 공중곡예, 인형극, 탈놀이, 파이어쇼, 마임, 마술, 국악, 가요, 클래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해외 초청공연은 프랑스 극단 아마니의 거리극 '세 얼굴의 오케스트라'로, 세 개의 머리를 가진 대형 인형과 음악가들로 구성된 키메라 오케스트라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국내 공연으로는

수학적 개념을 신명 난 마당극으로 극화한 예술공장 두레의 전통연희극 '마방진' 등 국내 유명 공연 20여 작품이 펼쳐진다. 행사 기간 중 '목포 광복탑'이 80년 만에 재현되어 관심을 끈다.

◇ 대구 계명대,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 행소박물관 특별전 열어



사진=계명대학교

대구 계명대가 창립 126주년을 맞아 행소박물관 동곡실에서 10월 31일까지 특별전시회 '동물과 인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동물과 인간의 오랜 관계를 예술 작품을 통해 돌아보며,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90여점의 전시품에는 회화와 도자기, 공예품뿐 아니라 미디어아트 영상도 포함되어 주목을 끈다.

전시는 호랑이와 토끼, 용, 기린, 새와 동물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고대 유물부터 현대 작가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동물 표현을 아우르며 인간 인식과 상징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시 기간 중 '머그잔에 동물 문양 그리기' 체험 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관람 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도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 안동시, 6월부터 하회마을 선유줄볼놀이 11회 예약제로 진행



사진=안동시

안동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는 '2025 하회선유줄불놀이'가 6월 14일부터 총 11회에 걸쳐 하회마을 만송정 숲 일대에서 펼쳐진다. 만송정 숲과 부용대를 가로지르는 밧줄에 솟봉지를 매달아 불을 붙여 올리는 '줄불', 강 위에서 뱃놀이를 즐기며 시조를 읊는 '선유', 달걀 껍데기등에 기름먹인 솜을 넣고 불을 붙여 떼내려 보내는 '연화', 말린 솔가지 묶음에 불을 붙여 강물에 떨어뜨리는 '낙화'로 구성된다.

장승 깎기, 탈춤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과 공연도 열린다. 올해부터는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행사 자생력 강화 등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관람료를 받는다. 관람 희망자는 '경북보야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관람료는 1인당 1만 원이며,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무료다.

◇ 서귀포시,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는 작가의 산책길 걷기'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가 6월 7일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는 2025 작가의 산책길 걷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작가의 산책길'은 서귀포에 머물며 빛나는 작품을 남긴 예술가의 삶과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도보탐방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홍준 교수가 참가자와 함께 걸으며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6월 2일까지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유홍준 교수와 함께 걷는 특별코스 150명, A코스 100명, B코스 100명 등 350명이다. 서귀포문화예술포털 내 '작가의 산책길' 홈페이지와 서귀포시 홈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스터와 리플릿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지역주민협의회로 하면 된다.

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